

월간

충현

10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위 영 환
주 간 신 성 중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 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 · 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5년 10월 12일 발행
통권 제22호



금년엔 보기 드문 풍년이라고 한다. 이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거니와 다음은 농부의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 하겠다.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시 126:5)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생각하면 금년에는 여러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이 열매를 적게 맺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를 발휘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생활에서 그렇다. 더우기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보다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만큼 잘 설명한 곳은 없다. 여기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 15:4).

제 1의 비결은 포도나무 줄기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어야 된 다. 그러기에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고 표현하셨다.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다. 그 뿐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요 15:9)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갈 5:22-23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이다. 그런데 이 열매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진다. 그의 영 곧 성령을 좇아 살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열매를 맺는 가을철에 충현의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생활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살찌야 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주간>

차 례

<설교> 풍성한 결실/김제창 목사.....	3
<기관소개①> 주일학교, 초등부	4
<해외선교> 인도네시아에서의 소식	5
<에스겔서연구②> 하나님의 종 에스겔/윤영탁	6
러시아교회 교회말살의 탄압 속에/신성종	8
<컬럼> 성구 二題/이형수	11
<제언> ◇ 1976년에 바란다/이승근	10
◇ 저 불쌍한 영혼/손동운	12
<구역공과> 11월분 사도신경	13
<교회뉴스>	14
<기자석>	16

10월의 행사

- 3/ 주일학교 성가대 친교회
- 5/ 정기 제직회
- 9/ 본교회 친교대회
- 12/ 남전도회 월례회·원사회 월례회
- 16-19/ 추계 성례식
- 16일 문답식 17일 세례식 19일 성찬식
- 19/ 교육위원회·교육연구위원회 월례회 여전도회 월례회
- 26/ 구역권찰회 월례회
- 28/ 정기 당회
-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기독교방송<840KH>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35분

풍성한 결실

김재창 목사

△ 8 : 4 : 15 V



농사에 세 시기가 있습니다. 곧 파종기·성장기·결실기입니다. 이와같이 신령한 믿음의 세계에도 세 시기가 있습니다. 곧 중생기·성화기·완성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참되게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중생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마침내는 구원의 최종 단계인 완성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1. 중생기 (파종기)

기회를 맞추어 씨를 뿌려야 하지마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갈아 잡초와 돌을 치워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땅땅 굳어버린 길 같은 마음이나 습기가 없는 돌딱밭 같은 마음이나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거칠은 마음밭에 씨를 뿌리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옥토밭이라야 백배의 결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꾀술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1-2)고 하셨습니다. 갓가지 마음속에 더러운 죄악의 잡초가 우거진 상태에서는 파종도 무의미할뿐 아니라 성장도 풍성한 결실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성화기 (성장기)

뿌린 씨는 잠시 후에 싹이 나오고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 성장합니다. 이 곡식의 성장과정에서 계속하여 물과 거름이 필요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과 병충해 방지를 위한 소독하는 일이 불가피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성한(벧전1:23)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으로 계속하여 성장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옵신 그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밭의 곡식이 풍성한실을 잘 겪은 뒤에야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 거룩하게 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양가가 가장 높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이 성장과 성화의 활력소가 되며 무서운 병충해를 방지하는 양약도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4:5)고 하였습니다.

3. 완성기 (결실기)

뿌린 씨는 성장과정을 거쳐 성숙하게 결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미를 알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감사생활·기도생활·헌신생활에 성숙한 신자가 되면 어떤 환난과 핍박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죄와 달콤한 유흥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은바 사명도 성공적으로 감당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사회주의자 가가와 도요히코(賀川豊彦) 선생이 어느 날 천황폐하의 부름을 받아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천황이 물기를 “예수는 누구를 닮았는가?”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잠시 당황했으나 잠깐후에 그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께 용서를 빌고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저를 닮았습니다”고 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천황은 “예수가 가가와 선생을 닮았으면 훌륭한 분이겠다”고 하였답니다. 우리들도 평소에 예수님을 닮아서 참되게 살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나를 닮았다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결실기에 접어든 성도는 어지간히 불쾌한 말을 들어도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며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도 담담하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감시다”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유만만한 생활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갈 소망과 확신 있으니 두려움 없이 웃으면서 죽음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심기워진 지 벌써 22년의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연부년 부흥하고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완숙하게 결실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시기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초종소리가 울리는듯 긴박하고 위급한 환경 속에서도 가을이 무르익는 중요한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성화되었는지요? 천국 왕도에 들어갈 만큼 완숙하게 결실하였는지요? 또 교회적으로는 이 사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감당하였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깊이 파고 거름을 더 주어야 할 제대로 성장도 안되고 결실도 없는 안타까운 상태는 아닌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요 15:8)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가을바람, 신령한 은혜의 햇빛을 듬뿍 받아 아름답고 충실하게 결실하는 천국 알곡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알곡만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감에 불타는 교사로 구성

=1953년 6명으로 시작, 현재 600여명 학생과 60여명 교사=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2년전 1953년 9월 6일에 우리교회를 세워주셨다. 교회설립해인 11월 1일에는 국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학교가 개교되었는데 선생님 한분에 학생수는 여섯명이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954년에는 선생님이 27명으로 늘었고 학생도 80여명이나 되었으며 최재성 장로가 우리 주일학교 맨처음 부장님이 되었다.

그 후, 하나님은 우리주일 학교에 해마다 큰 축복을 내려주셔서 1964년 1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겨울 어린이성경학교를 열어 교계의 선구자적 영향을 주었고, 1966년에는 유년주일학교의 학생수가 870여명에 이르렀다. 단일체제로는 정상적인 교육을 이뤄나갈 수가 없게 되어 아래와 같이 나누게 되었다. 즉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를 유치부, 국민학교 1~3학년 어린이를 유년부, 국민학교 4~6학년 어린이를 「초등부」로 나누어 운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름 및 겨울 어린이성경학교등 모든 교육행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초등부」로 독립된 지 근 십여년이 지난 오늘(75년 10월 1일)에 와서는 교육전도사 한분과 60여명의 교사, 600여명(제적)이 되는 학생으로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이다.

역대부장으로서 김익화·김창배·최석주·윤용규·송순일 장로 등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으며, 1975년 현재에는 이용선 장로가 역임해오고 있다. 또한 지도로는 임승원 목사가 1966년부터 1969년까지 홍종만 목사가 1970년부터 1974년까지 1975년 현재에는 김태현 전도사가 역임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부장·부감을 위시하여 총무처·교무처·생활지도처의 3개처와, 시기와·회계과·음용과·4과(4학년)·5과(5학년)·6과(6학년) 그리고 전도과·심방과·지육과·봉사와·축위과·어린이회 등 12개과가 있으며, 남자가 23개반 여자가 23개반으로 46개반으로 편성되어 있다.

「성경말씀을 바로 알자」라는 표어 아래 온 교사들은 학생들을 천국 일꾼으로 키우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

고 있다. 모든 운영체제를 과별중심제로 바꾸어 운영함으로써 상호중심의 질서유지가 확립적이고 합리적이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교사자질 향상을 위해 매월 준비공부와 과별회의와 학년주임회의·전체교사회의를 열고 주교 전반에 걸친 진단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신입교사 임명시 사명감 발로를 위한 부장단의 사전다짐교육은 필수적인 것으로 다른 주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어른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된 대심방을 어린이들에게도 실시한 지는 오래 전 일이고, 올해에도 춘계대심방에 이어 추계대심방을 이미 9월중에 실시하였다. 어린이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오늘의 만나」라는 숙제지를 매주 발행하고 있으며 1959년 이전부터 「새싹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어 오던 어린이면담회가 1960년에 「어린이회」로 그이름을 바꾸어 운영하며 회지 「하얀마음」(지난해 제9호)을 해마다 발간하여 오고 있다.

1973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5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 「어린이 수양회」는 3회를 지내는 동안 양질의 성장을 가져와 이를 실시함으로써 부모형제에 대한 고마움과 협동심을 길러주고, 믿는 자의 생활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중요한 기회로 부각되어 절대 필요성을 갖게 하였으며, 교사들의 자진협조로 매주 「커미타입」이 1부 교사실에 마련함으로써 대화의 폭을 넓혀 상호 유대강화와 업무처리에 신속함과 유익함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초등부는 성장하고 있으나 시정해야 할 점들이 몇가지 있다.

첫째 지각생이 많다는 것이다. 매주 평균 지각하는 어린이가 43% 선생님이 15%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중 어린이는 4학년보다 5학년이, 5학년보다 6학년이 더 많고 선생님들 중에는 남선생님보다 여선생님이 더 많이 지각을 하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야 하는 예배에 처음시간부터 참여하도록 협조와 독려가 있어야 하겠다.

둘째 장기결석자 및 극빈가정이나 불신가정에서 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추계대심방 결과를 통해 문제점 발굴과 동시 대책을 세울 계획이지만 이들에 대한 문제점 해소에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안다.

올해의 하반기 목표로 출석학생 400명 돌파를 위해 경주하고 있다. 이미 380명대를 넘어섰으므로 넘치게 주실 것을 믿고 모두가 애쓰고 있다. 60여교사중 집사님이 23명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초등부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주님의 일을 앞세우는 교사들이 있는 한 어찌와 오늘 그리고 내일은 밝기만 할 것이다.

<서동석 집사/초등부 교무처장>



인도네시아 선교, 8월 보고서

제코미스: 06/31—8/75호

제코미스: 06/31-8/75호

제 목: 8월 보고서

수 신: 총원교회 해외복음선교회

가. 보고사항

1. 수신 및 발신

1) 총원교회 해외 복음선교회가 송금한 1,610\$, 본 선교부 구좌에 입금되다. (8월 6일)

2) 총원 해외복음선교회 8월 후반기 공한(제충선발 11호) 접수하다. (8월 26일)

3) 선교회관 건립금 청원서(현지 대사관 확인) 발송하다. (8월 11일)

4) 북부스마트라 개혁교회(G.K.P.S)로 부터 성경책 및 집회청원서 접수하다. (8월 19일)

5) 남부술라웨시 우중 반당 소재 시틀아샤트 신학교(SYTRUL ASYAR)와 중부 자바스 마랑 소재 압디엘 신학교(Semarang, ABDIRL)에 제 2학기 장학금을 송금하다. (8월 19일)

2. 내방 및 방문

1) 인도네시아 복음교회(G.K.I.I) 남부 스마트라 노회장 위요노(H.M.WIYONO) 목사가 팔렘방시 연합집회 일정 및 본 선교부 지부설치 협의차 내방하다. (8월 3일)

2) 팔렘방 국민학교 교장 목덕안(B.MOERTIAN)목사가 학부로 전도사업 협의차 내방하다. (8월 5일)

3) 북부 스마트라 오순절교회(PENTA.I)대표 시안투리(R. SIANTURI)대령이 해신학교를 위한 보조 청원차 내방하다. (8월 17일)

4) 인도네시아 벨렐교회 따젠 목사가 람뽕지역 연합집회 일정협의차 내방하다(8월 18일)

5) 인도네시아 오순절교회 남부 스마트라 대표 카룬덴(KARUNDENG)목사가 전 그마트라 집회일정 협의차 내방하다. (8월 19일)

6) 전 스마트라 순회집회 계획보고 및 협조를 위하여 종교성 기독교교장 하레파(P.N. HAREFFA)목사를 방문하다.

3. 강단사역

1) 주 인도네시아 공화국 한국 거류민회 주최 광복 30주년 행사 및 고 육영수여사 1주기 기념식 기도인도. (8월 15일)

2) 중국계 교단(G.K.) 소속 따루나(TARUNA)교회 인도네시아 해방기념 예배 인도. (8월 17일)

3)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광복기념 예배 인도 (8월 17일)

4. 남부 스마트라 지부

도원회의 기도와 정성으로 힘을 기우고 있는 본선교부 남부 스마트라 람뽕지부장 베드르(PIETER B.S)는 지난 6월 이래로 7개처의 소도시의 촌락교회 또는 가정집에서 집회를 인도하다.

5. 선교관 건축진행 상황

총원 해외복음 선교회가 결재 지출한 건축 착수금은 현재 본 회관을 맡아 짓고 있는 문철수 사장이 영수, 지난 7월말까지의 모든 비용으로 지출되었고 부분적 이나마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게하기 위하여 몇몇 개인에게 차용하여 진행하다.

6. 전 스마트라 순회계획

기간: 1975년 10월 1일—11월 15일

구성인원: 5명(주강사, 4개교단 대표 각 1명)

지역: 람뽕지역, 4개처,
남부 스마트라 지역, 4개처
쌍쿨루 지역, 2개처
잠비지역, 1개처
방카지역, 2개처
팔렘방지역, 미정
빠라유 지역, 미정
따빠눌 지역, 미정
매단지역, 미정
빠마당시안파트 지역, 미정

7. 순회집회를 앞둔 스마트라의 형편

자바섬으로부터 이주한 자바인들의 정착지 람뽕지역과 중국계 사람들이 사는 지역, 그리고 북부 스마트라 바라지지역을 제외하고는 강력한 회교세력 아래 있으며 따빠눌리족은 널리 알려진 식민종으로 1968년도에도 선교사부인을 먹을 정도였다. 현재는 루터교 계통의 선교를 받는 지역이다.

자바로부터 배로 남부 스마트라 람뽕지역에 도착하여 집회를하며 북행 또 바호수를 지나 아체지역까지 집회를 마치고 함공편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회는 각 교단이 동원되며 증강을 비롯 각 중요도시에 파견된 종교성 지청에서 적극 지원하게될 것이다.

8. 각 청원권 처리

1) 북부 스마트라 개혁교회가 청원한 성경은 본선교부가 주문한 성경이 한국으로부터 도착되는 즉시 보내기로 하고 집회청원건은 이번 순회집회에 별도록하다.

2) 본 선교부 팔렘방지부 설치순회집회시 상황 및

<7 페이지에 계속>

하나님의 종 에스겔

윤 영 탁 전도사

<본교회 전도서·충신 강사>

<연재순서>

1. 에스겔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2. 시대적 배경과 소명
 - (1) 시대적 배경
 - (2) 포로된 자에게 보냄받은 에스겔
 - (3) 파숫군으로서의 에스겔
 - (4) 표징으로서의 에스겔
3. 에스겔 선지의 메시지

2. 시대적 배경과 소명(召命)

(1) 시대적 배경

에스겔은 제사장 사독 계열(系列)의 부시의 아들로 주전 622년에 출생했다. 그때가 바로 요시아왕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던 역사적인 시기였다. 얼마동안 요시아왕의 개혁운동은 이스라엘민족에게 축복과 보나오는 미래를 약속해주는 동기가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에스겔의 소년시절에 급격히 변동되는 근동 지역(近東地域)의 정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된 유다왕국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국외적으로 볼 때 한때 강대국이었던 앗수르왕국이 메대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주전 612년)함에 따라 유다왕국은 새로운 위협을 느끼게 됐다. 바벨론은 그후 계속 그세력을 팔레스틴에 뻗치게 되니 애굽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리하여 마침내 갈그미스(갈게미쉬라고도 함)에서 바벨론군이 애굽군을 대파함으로써(렘 46:2), 바벨론은 팔레스틴 세력확장을 확고히 했다. 국내적으로는 불행히도 요시아왕의 종교개혁운동이 단명(短命)했다. 그 근인(近因)은 요시아왕이 프깃도 골짜기에서 애굽의 느고왕과 집전중 부상당한 것으로 인해 별세한데 있고(대하 35:20-27), 그 원인(遠因)은 요시아왕 이후의 유다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여 이 개혁운동을 저버리고 악을 행한데 있다. 더우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은 백성들로 하여금 도탄에 빠지게 했다(렘28:1-4, 하나님의 예언 참조).

이와같은 위기에 임한 유다왕국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처신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는 전무(全無)했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메라는 명령(렘 27:12)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군대와 군마를 의지하는 친 애굽정책을 채택했다. 여호야김왕은 바벨론왕에게 반역한 탓으로 포로가되어 끌려가든 도중에 사망하였다(대하 36:6, 렘 22:19).

그의 아들 여호야킨은 악을 행했으며 다만 3개월 10일 통치한 후에 포로가 되었다(대하 36:9). 그의 후계 시드기야왕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왕과 맺은 언약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태도를 에스겔선지가 책망 했음은 물론(렘 17:11-21),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을 유다왕국이 멸망한 원인중의 하나라고 밝혔다(대하 36:13).

에스겔은 다니엘이 느브갓네살왕에게 포로가되어 가는(주전 605년, 단 1:1,3) 일행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그가 25세되는 주전 597년에(렘 1:1,33:21,40:1) 여호야김왕의 일행과함께 포로가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다. 그는 바벨론의 그발강가의(렘 1:1,3:3:15)멜아빔에(렘 3:15) 머물고 있었다. 그가 가정을 이루었음이 분명하며, 그의 아내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던 해에 별세한 것으로 보인다(렘 29:17).

에스겔은 포로생활한 지 5년째 되는 때에 소명(召命)을 받았다(렘 1:2 이하). 그는 22년동안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일했다. 비록 유대인의 전설에 그가 전도하는 일로 인해 동족에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이 있기는하나 이렇다할 확실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의 생애의 말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독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연대와 사건을 적어보기로 한다.

주전 622년 에스겔 출생/요시아왕의 종교개혁운동 시작/주전 612년 앗수르의 니느웨성 함락/앗수르왕국 멸망/주전 609년 요시아왕 별세/주전 605년 갈그미스 대전(大戢), 다니엘이 바벨론포로가 됨/주전 597년 에스겔이 포로가 됨(25세)/주전 592년 에스겔이 소명을 받음(30세)/주전 586년 유다왕국 멸망/주전 570년 에스겔의 생애가 끝남(22년간).

(2) 포로된 자에게 보냄받은 에스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내주신 것 자체가(렘 3:5,11) 그의 무한하신 은혜임을 나타내 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며 자신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포로생활하게 된 이 사실은 그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증명해 준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가를 하는 것은 시편 137:1-6을 통하여서 잘 알게 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때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찌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때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찌로다.”

그들은 슬픔과 낙담 가운데 이국(異國)의 낯선 환경과 생활양식에 적응되지 못한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며 향수에 젖어있었다. 여호와와 맺힌 백성이 성전에 없는 부정(不淨)한 이방땅에서 노예생활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타격을 주었으리라! 그러나 에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그들은 여러모로 적응되었고, 환경면이나 경제적면에 있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보다 풍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다(느 1:3 참조).

그러므로 포로생활 70년후에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마침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은 오히려 바벨론에 머물기를 원했다.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만이 돌

아가게 되었다(스 1:5).

이러한 기이(奇異)한 현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부터 얼굴을 가리우신 것은 그들이 스룹바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마저 버리고 포로가 된 나라에 머물러 이방과 같이 살기로 일부러 선택한 까닭이라고 한다. 출애굽의 경우와는 좋은 대조가 된다. 애굽의 고된 노예생활과 견딜 수 없는 압박과 멸시에 견디지 못해 한 사람도 남아 있기를 원하지 않고 탈출하였는데, 바벨론에 포로로간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기를 거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에 그들이 반역하며 절개없고 감사한 무리라는 것을 모르시는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피의 값으로 비참과 절망속에 가련한 상태에 빠진 그 순간에 그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어 “너희는 법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죽는자의 죽는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라”(겔 18:31-32, 33:11 참조)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장차 그들을 “한 입금이 모두 다스리게”되며 그 성읍에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므로 “여호와와 함께”라 불리게 될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받아야할 대가로서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사람을 배풀어 주심을 말한다. 그러므로 에스겔을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신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 바로잡음=지난 호의 4페이지 26행의 「어거스틴」은 「칼빈」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5 페이지에 계속>

경비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3) 북부 스마트라 오순절교회 신학교를 위한 보조청원은 본 선교부 장학 위원회에서 1975년도 제2 학기에 장학생 4명을 선발지급하기로 하다.

나. 문의사항

1) 전 스마트라 순회집회 비용 400-500\$을 허락하시겠는지요? (명세는 순회후)

2) 기독교신보 8월 16일자에 의하면 김광철회장이 미

해외선교를 위한

“ “ “ “ “
선 교 음 악 회

지휘 : 이 효 은 / 반주 : 이 승 순

일시 : '75. 11. 1 (토) 19시

장소 : 충현교회 대예배실

국 여행중이신데 현지 선교부 방문 계획은 없으신지요

다. 청원사항

1) 이후, 현지 선교부의 문의사항 및 청원사항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은 정기 통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신속처리하여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선교를 위한 이달의 기도제목 *

1. 인도네시아 선교관 건립을 위하여
2. 서만수 선교사 내외분의 건강을 위하여
3. 선교사후보(홍종만 목사, 이연호 전도사(해외선교회 내정))를 위하여
4. 일본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위하여



◇ 지금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의 어느 교회 ◇

교회 말살의 탄압 속에 러시아교회의 현황

신 성 종 강도사

<충원지주간·대학부지도>

□□……과연 공산 러시아에는 교회가 있는가? 있다면 그들이 누리는 자유는 어느 정도인가? 그 모두가 우리의 궁금한 문제들이다. 그런데 지난 9월 27일 스웨덴의 선교회의 총무인 잉게마 마틴손(Ingemar Martinson) 목사가 본 교회를 다녀가면서 여러가지 귀중한 자료를 주고 갔다. 따라서 여기에 실리는 내용은 그가 보여준 사진과 그 밖의 자료에 의존한 것임을 말하여 둔다. ……□□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만 해도 러시아에는 6,000만 명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 모스크바 안에만 무려 1,000교회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이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회람 정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교회들은 부패하기 짝이 없었으며 제정 러시아와 함께 힘없이 넘어가게 되었다. 마치 고목이 썩어지듯 말이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러시아에는 공식적으로 집계할 수 없

는 극소수의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 있을 뿐이다. 현재 모스크바에는 30개의 교회가 있다. 나머지의 교회들은 현재 수영장, 식당, 공회당, 상점, 공장, 박물관 사무실, 창고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옛날의 그 아름다운 전례 찾을 길이 없다. 그리고 두개의 정교회만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 주일에 한하여 문을 열게 되며 목사의 설교 원고는 사전에 검열하는게 하나의 관례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에서 14마일 떨어진 곳에 하나의 침례교가 자리잡고 있는데 매주일 아침 세번 예배를 드리며 매번 2000여명이 입주의 여유도 없이 교회로 메운다.

그 밖의 교회들은 가정 교회로서 개인 집에서 모이는데 보통 500~600명 정도 모인다고 한다. 따라서 장소가 비좁아 모든 살림을 밖으로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은 사과상자같은 것으로 대용하며 5-6시간정도 함께 예배·성경공부·성도의 교제를 가진

다. 그런데 가끔 밖에 돌아온 살림이 경찰들에 의하여 산산히 부서지는 일은 이곳에서는 별로 놀랍지 않다.

이들은 1984년을 종교 말살의 해로 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사로 독을 넣어 미치게 하거나 강제 노동수용소로 보내곤 한다. 최근 아이다 스크립니코바(42년생)란 여성도의 얘기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녀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번 강제수용소에 갇혔으며 그리면서도 전도와 예배를 그치지 않고 있으며 몇년 전에는 UN 사무총장 앞으로 공산 러시아 내에서의 종교탄압과 핍박을 상세히 보고한 바도 있다.

아무튼 러시아에서 제일 무시워하는 것은 성경과 녹음기로서 그들은 국경 지대에서 이 두가지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 사실 한스 닐스코브(덴마크의 유력신교회장)의 사진이 아니었다면 달려진 러시아 교회의 모습이 자유세계에 상세히 폭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1970년 6월 러시아에 성경을 밀수출하면서 여리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출국당시 체포되었으나 필름 한통만 압수되었을 뿐 나머지는 반각되지 않아 책으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지금 러시아에는 종교 말살을 위해 250만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고(full time으로) 매일 반종교 강연만도 4만건에 달한다. 박물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온갖 재료를 수집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성도를 죽인다는 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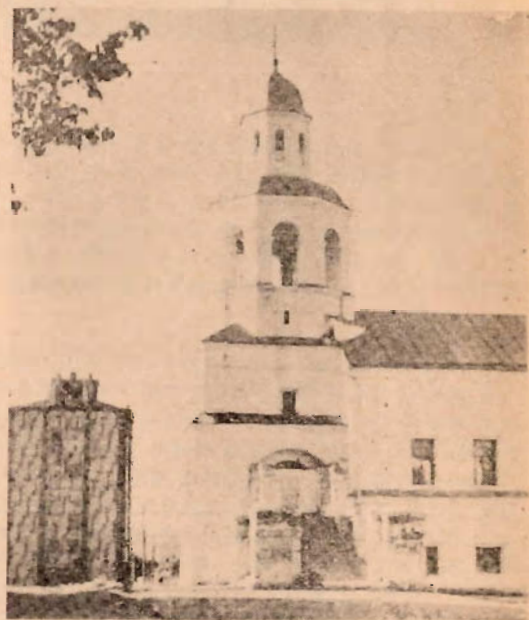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는 왜 저들이 교회를 공적으로(비록 소수이지만) 용납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스 닐스코브는 다섯가지로 대답한다. 첫째는 러시아의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나마 극소수의 교회를 용납하지 않을 수 없고, 두번째는 그들이 UN의 회원으로서 인권헌장에(종교의 자유를 포함함) 서명했기 때문이고, 세번째는 UN의 다른 회원들에게 선전할 재료를 위해서이며, 네번째는 천여년의 긴 전통을 가진 러시아의 교회를 일시에 없애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다섯번째는 제한된 극소수의 교회를 허가에 의해 용납함으로써 모든 종교를 공산당들이 장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교회를 다 없애지 않는 것은 자유세계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을 적화시키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K.G.B. 만도 40만 이상을 보내고 있는데 전세계의 선교사의 수가 58,452명에 그것도 한국의 선교사는 불과 52명이라고 하니 수적면에서도 현재 교회들은 잠자고 있는게 사실이다. 아무튼 놀라운 사실은 러시아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수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알렉산더 솔제니친만 해도 무신론주의자였으나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전도를 받아 신자가 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 선교를 위해 이제는 기도하며 일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 북한 선교를 위하여 마틴슨 목사와 만남 일은 여러가지 면에서 뜻있는 일이라 생각되며 거기서 토의된 일들이 실현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할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 8:37).

(*)

□□□...러시아가 공산화 될때만 해도 러시아에는 6000만명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 모스크바 안에만도 무려 1000교회나되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들이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었다. 그러나 □□□



◇ 이 교회당은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 현재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회, 굴뚝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이를 실증해 주고 있다.

시급히 갖춰야 할 교육보조 재료

이 승 근 전도사

<유년부 지도·교육위원>

교육재료라고 하면 교육에 필요한 교재, 부교재, 교육용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비품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총회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육을 크게 구분한다면 주일학교와 성경학원을 중심한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로 11부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료만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1. 영아부

영아부는 1975년도에 신설되었기에 모든 조직·운영면에 있어서 대부분 개척분야이고 그에 따라서 교육재료도 새로이 많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과가 있어야 하겠다. 커리큘럼이 2년제로 짜여져 있는 이상 2년제 공과를 자체 또는 위탁해서라도 집필이 시작되어야 하되 반드시 그림이나 용판을 보조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또 영아부용 찬송가를 수집하거나 또는 교회자체에서 작사·작곡·편집하여 영아부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따라서 율동을 지도할 수 있는 보육대 출신 전담자를 두어야 하겠다. 특별히 영아부는 실내장식 자체가 교육이므로 미술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해서 수시로 실내장식을 알맞게 변화시키는 것이 영아부에서는 실제로 제일 필요한 교육재료가 된다.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어머니 교육시간의 강의내용을 정리해서 프린트해 배부하면 참서치 못한 어머니들에게도 간접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2. 유치부

현재 사용중인 공과는 1년분으로 현재의 2년제 커리큘럼과는 실제적인 교육에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2년제 공과로 만들되 시청각 교재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야겠다.

3. 새신자부

현재 어린이 새신자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과는 임승원 목사가 집필한 신입부용 공과 중에서 5주용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유년부어린이용과 초등부 어린이용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에서 집필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최소한 1, 2, 3학년만이라도 시청각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어른 새신자부를 위해서는 교회 및 신앙을 소개 할 수 있는 슬라이드를 제작하는 것이 어떨까?

4. 유·초등부

유년부 공과는 할수있는 대로 용판을 보조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저녁예배시에 사용할 커리큘럼에 따른 공과를 단계적으로라도 집필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또 장소문제도 있지만 어린이의 신앙성장을 위한 도서를 구입해서 주일만이라도 교회에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5. 중·고등부

현재 사용중인 공과는 새로 집필되어 나온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직접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성경연구 보조교재를 만들어 붙이 좋겠다.

6. 대학부

4년제 커리큘럼은 있으나 공과가 없으므로 4년제 공과를 76년부터는 집필을 시작해야 하겠다.

7. 1부주일학교(새신자부·영아부·유치부·유년부·초등부)

어린이들에게는 시청각교육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앞으로 교육재료는 이쪽면으로 많이 치중을 해야 하겠다.

첫째 영사기와 필름을 구입해서 주일학교 자체교육뿐 아니라, 농어촌교회 초청훈련회와 농어촌 파송시에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둘째 기독교 시청각교육부나 어린이전도협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슬라이드용 필름과 용판과 그림성경을 모두 구입해야 하겠다. 처음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 긴 안목으로 본다면 오히려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고 교육 프로그램도 실제적으로 변화있게 작나갈 수 있다.

8. 2부주일학교(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장년부·노년부)

2부주일 학교는 성경을 직접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성경연구를 위한 보조교재를 각부마다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9. 교육부

① 현재 사용중인 칠판들은 대부분이 낡고 상재가 나 있으므로 바꾸든지 아니면 새로 칠을 했으면 좋겠고 영아부와 유치부는 용판이 있는 이등식 칠판이 꼭 필요하다.

② 각부 주일학교가 산발적으로 부르고 있는 복음찬송을 교육위에서 종합, 출판·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③ 1부주일학교용 사진기가 자주 고장나는 낡은 것인데 주일학교용 사진기를 좋은 것으로 바꾸되 3대정도로 준비했으면 어떨까?

④ 주일학교 프린트가 큰 문제인데 주일학교 서기(상임서기)는 실제로 프린트만 하고 서기의 일은 못하므로 교육보조재료를 만들려 해도 일이 많아서 부락을 하려다가도 주출하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출판부를 두든지, 아직까지 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프린트물을 맡수 있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둔다면 교육보조재료를 각부에서 부탁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겠다.

교육을 하는 데 교육재료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할느냐 하는 것은 교육담당자들의 문제이겠지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은 역시 교회당국에서 해야하므로 최소한 위에서 말한 사항 정도는 밀어주도록 합력하여 유익하게 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 양 회 를 마 치 면 서

초등부 5학년 6반 이 인 영

집에 갈 생각을 하니 3일동안 이곳이 정이 들어서 그런지 집에 가기가 싫어졌다. 어저께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배를 드렸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보니 좀 무서웠다. 나는 그때 문득 나에게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하고 생각하니 십자가를 보기가 좀 부끄러웠다. 지난 날의 죄를 생각하니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어저께야 알았다. 맨 처음에 와서는 밥도 입에 안 맞고 잠도 안 왔다. 그러다가 어느덧 3일이 지났다. 집에 갈 날이 가까와 오니 집에 가기가 싫어졌다. 나

는 이곳 무궁화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도 많이 배웠다.

우리는 이곳에 놀러온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자,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표어와 목표를 가지고 이 포어와 목표를 배우러 왔다. 그러나 그동안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으나 어저께야 나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

나는 결심했다. 앞으로도 꼭 참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했다. 집에 갈 생각을 하니 정말 가기가 싫다. 수양회는 정말로 즐거운 수양회였다. 이번에 이 추억은 나에게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200자 결원

성 구 二題

이 형 수

8월의 염천에도 덥지가 않은 곳이었다. 1,000여 미터가 넘는 고지를 모래짐과 시멘트를 메고 오르내리고 했다. 생애 처음 해 보는 고생이었다. 칙칙산중이란 말이 실감나는 곳이었다. 눈의 끝이 닿는 데까지 산, 산, 산, 온통 산뿐이었다. 친구로부터 온 편지에는 「그래도 넌 단체에서 오는 유대감·안정감을 있을 것이다. 여기는 온통 혼자, 혼자뿐이다. 이 시골에 500여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건만……」 했지만 그 단체감을 느끼기에는 육체의 고통이 너무 심했다. 정신과 육체의 본질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하나의 극에 달했던 것 같았다.

얼마간의 그런 생활 가운데 새로운 계기가 생겼다. 호를 불릴 때에서 조그마한 성경을 보던 중 만난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였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은 그 상황에서 커다란 발견이었다. 그 어려운 일은 큰 즐거움으로 대할 수 있었다. 「여기에 하나의 배움이 있다. 결코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속에 허벅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여유가 나도 모르게 생겼다.

이때의 일은 나의 3년간의 군대생활 중에서 가장

잊히지 않는 추억이 되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때 생각을 하며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니 말이다.

정확한 현실위에서 가장 합리적이다 실게 생각하며 미래를 계획하곤 했다. 그러나 것처럼 정확한 현실 위에서 충분한 오차를 두어가며 세운 계획들이었지만 몇달이 지난 후에 돌이켜 보면 너무나도 처음에 계획과는 다른 방향에 처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했다. 쓴 오이쪽을 씹듯 언짢은 중에 조우한 말씀은 토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모두가 (뜻은 일이지 좋은 일이지) 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정확히 계산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상태로 있어야 될 그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지금」에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꼭 알맞는 상태인 것 같았다. 모든 지난 일들이 꼭 거처야 되는 당위성을 띄고 있었다. 그래서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없이 「지금」을 그대로 승복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욱 매력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성경을 처음으로 통독하고 난 후에 느꼈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이 한귀결에서 절게 느낄 수 있었다.

좋아하는 성경구절도 수시로 변하는 모양이다. 이제 또 오랜 세월이 흐르면 어릴 때 형제들과 함께 아무 뜻도 모르며 열심히 외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를 제일 좋아하게 될 지도 모른다.

◇ 제 언 ◇

- ☐..... 매일 교회를 찾아 구제를 요구하는 사람.....
- ☐..... 이 20~30명에 달한다. 이는 연말의 크리스.....
- ☐..... 마스때가 되면 200~300명이 오곤 한다. 이.....
- ☐.....들에게 그저 명목상의 구제만 그럴 것이 아.....
- ☐.....나라 구제와 아울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찌 복음에 빈부의.....
- ☐.....차이를 둘 수 있겠는가?.....

저 불쌍한 영혼을 외면할 것인가?

손 동 운 집사
〈고동부 교사〉

수년 전부터 전국복음화운동·전국군복음화운동 등 거국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복음화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여 금년들어 특히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한 현시점에서 총동원전도운동·안드레식 전도운동 등 다양하게 교회회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은 역시 이 민족에 소망이 있음을 다행하게 여기며 여기 한가지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옛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과 같이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영혼들은 우리는 등한히 여기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성탄절이면 구제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2,3백명에 달하여 그들에게 지불되는 구제금만도 2,3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단지 몇푼의 구제를 받으

을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이 좋은 기회를 확실히 놓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0절에 보면, 매일같이 성전 밑에 앉아 구걸하던 앉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고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과 영혼이 함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어찌 우리가 이 많은 영혼들을 외면할 수 있을 것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습니까?

누가복음 14장 16-24절에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받은 손님들이 핑계하고 오지 않을 때 주인은 종을 불러 “거리에 나가 소경들과 병신들과 가난한 자들을 모조리 청하고 강권하여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명하였다”는 말씀은 어찌 하나의 비유로만 돌리고 말겠습니까.

복음은 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니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 특별히 시간을 정하여 성탄 축하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왕에 부끄럽게 또는 으레히 지불되는 구제금을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부족하면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 성탄절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주일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역시 모여드는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심지어 구제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떤 권리(?)를 주장하며 행패를 부리는 그들에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노방전도나 축회전도처럼 나가서 밤을 새워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앉아서 찾아 오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의 길로 인도하자는 것입니다. 어찌 거지들을 상대로 한 전도자나 전도 집회가 외국에만 있으랴 말입니까? 예수님도 가난한자와 병든자를 먼저 찾아 오셨습니까.

작년 12월, 제직회에 건의 하였다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일이지요. 다시 한번 제언하는 바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한진대 하물며 이 수많은 영혼들이겠습니까.

동전 한두푼 등냥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 나의 생각

크리스마스의

주요행사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구제를 요청해 온 사람들이 실경이를 별 리는 것을 여려번 보았다. 뾰족한 방법을 생각할 수 없이 막한 일이었다. 손동운 집사의 「제언」을 보니 힘이 생기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자고 말하고 싶다. 크리스마스에 결연들을 위한 대잔치를 베풀었으면 어떠할까?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저들을 위해 대잔치를 베풀며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한다면 크리스마스에 우리끼리만의 찬양 기쁨을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올해부터는 거교회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주요행사로 이 일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던 바랄 것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교회는 그동안 많은 일들을 솔선해 왔다. 금년부터 새로운 계획이 또한 솔선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시행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자. 이 일은 아마도 가장 뜻깊은 크리스마스의 행사가 될지도 모른다.

(청년부/이한석)

구역 공과

◇ 11월 공과 ◇

제 3 장 : 기독교론

성경/요 1:1-18, 참고: 빌 2:5-11, 찬송/409(합 396)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사도 신경 중에서)

지난 달에는 교리의 필요성과 신론(神論)에 대해서 공부했다.

이 달의 첫 주에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 제목은 기독교론 즉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이름 그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확인한 후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네 마디의 말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예수님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① 갈릴리에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참 사람이심.

“예수”란 우리 주님의 자연인에 대한 이름이다. 마 1:21에 보면 이 이름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이다. 그런데 인간 예수님은 눅 2:52에 보면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성을 가지셨는데, 다른 점은 단 하나 “죄는 없으시니라.”(히 4:15)

② 구세주이심

“그리스도”란 말은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칭호(a title)였으며 그 뜻은 “기쁨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 칭호가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은 그가 예언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쁨부음은 ①예언자 ②제사장 ③왕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세가지의 직임을 가지셨던 분이시다.

③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그 외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신성(神性)을 고백하는 신앙적 표현이다. 요 1:1에 보면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셨던 “말씀”이셨으며 요 8:58에는 아브라함이전에 계신 분이라고 했다. 예수님께 대한 신성을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한 베드로의 고백이다(마 16:15-17). 요 20:31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의 신성을 표현하는 귀절로는 마 11:27; 28:18; 요 8:12; 10:30; 11:25; 14:6; 20:28; 롬 1:4 등 많이 있다.

④ 생명의 주가 되심

“우리 주”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즉 예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 또는 노

예로서 그에게 절대복종해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준다.

⑤ 처녀에게서 탄생하심

마 1:18-25; 눅 1:26-56; 2:1-22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 우리 자연인의 출생과는 달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했다. 신인양성(神人兩性)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탄생하신 것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서 그의 초자연적 생(生)과 조화되는 말씀이다.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당신의 주님이 되셨으니 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가?

제 4 장 : 십자가의 의미

성경/롬 5:6-11, 참고, 신 53장, 히 9:11-15, 24-28 찬송/434(합 424).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사이엔 중지부가 아닌 콤마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인류사에서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원히 계신 분이 잠깐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힘으신 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① “십자가”의 뜻

사 53:3-5에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다. “그가 절립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요 1:29,36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으로 표현했는데 그 뜻은 예수님은 무죄하시나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곧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재물을 상징한다.

② 십자가의 필요성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5);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고전 15:3);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위의 여러 귀절들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셨음을 보여 준다. 십자가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이며 이미 예언자들을 통하여 구약에서 약속하신 계약의 성취이다.

③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적어도 다음 네가지를 성취했다.

① 죄를 깨닫게 함: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은 사망임을 보여 주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자신의 범죄한 모습을 영원히 지극히 분명한게 보지 못했을 것이다.

②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셨다(롬 5:8)

③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골 1:14; 벧전 2:24).

④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희생적 사람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 주었다(마 16:24).

이 구역공과는 매월 계속해 실립니다.

주교교사 · 성가대원 교회

—10월 3일 공휴일 맞아—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며 친교를 다지는 교사친교회와 아울러 성가대원을 위로하는 친교회를 지난 10월 3일 각부와 성가대별로 실시되었다.

봄과 가을로 나뉘어 해마다 실시되는 교사친교회는 금년에는 각부별로 각부 자체의 프로그램과 계획하에 실시되었다. 다른부의 교사들과는 접촉할 기회가 좀처럼 없어, 교사들간의 횡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봄에는 교육위원회가 주관하여 11부 전체교사가 함께 열리며, 가을에는 각부별로 실시하고 있다.

다소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90%이상의 교사가 참가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각부별 친교회장소는 다음과 같다.

새신자부 : 내국, 영아부 : 신철원(강원도), 유년부 : 남이섬(강원도), 중등부 : 계룡산(충남공주), 고등부 : 신철원(강원도).

또한 이날 제일성가대에서도 충북 속리산에서 친교회를 가졌다.

한편 유치부는 10월 24일 소요산으로 야외예배를 가며, 노년부에서는 21일 한탄강으로 그리고 여성성가대는 서울 근교로 예정하고 있다.

성가부 수련회 개최

—『예배와 음악』등 시간 가져—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토록 내입에 가득 하나이다」(시 71편 8절)란 주제성구 아래 여성·제일 성가부 수련회가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박봉배 목사의 「예배와 음악」과 이귀자 선생의 「무엇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의 두분 강사의 특강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며 참된 성가대원의 자세와 소명의식을 불러일으켜 주었다.

추석 성묘합동예배 거행

—300여명 참가 충현동산에서—

해마다 가지는 추석성묘합동예배는 9월 20일 충현동산(경기도 평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소재)에서 백성룡 목사의 인도로 때마침 거센 비바람 속에 엄숙히 진행되었다. 성경 읽전 6:7-16을 봉독, 이어 설교를 통하여 백목사는 “우리는 앞서 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의 유덕을 추모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손들이 되라”고 말을 맺어 그곳에 모인 300여명의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추계성례식 다가와

—성찬예식은 10월 19일 주일에—

해마다 봄·가을로 나뉘어 거행되는 성례식이 이 주간인 16·17일 양일에 걸쳐 시행된다. 성례식을 받기 위한 문답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 습 : 교회 출석한 지 6개월 이상된 분으로 만 14세 이상.

세 례 : 학습서신 후 6개월 이상된 분.

입 교 : 유아세례를 받으신 분으로 만 15세 이상.

유아세례 : 만 2세 미만의 아기로써 부모님의 신앙적 합의가 있는 자.

그런데, 문답은 16일(목) 오전 10시—오후 9시까지와 17일(금)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며 세례식은 10월 17일(금) 오후 7시 30분에 있다. 한편, 성찬예식은 10월 19일 I부·II부·III부 예배시에 거행된다.

당회장

김목사님 곧 출국

—일본에 부흥회

인도차—

우리교회 당회장이신 김창인 목사는 10월 27,28일경 일본으로 떠나게 될 것 같다. 재일교포 교회들의 초청으로 부흥회 인도차 가는 김목사는 이미 지난 봄에도 초청을 받은바 있으나 여권수속상 작정된 일시에 미치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었다. 이번에 일본에 가시면 홍종만 목사 일본국 선교사 파송하는 현안 문제 해결방안에도 큰 진전을 볼것 같다.

온교회 정성껏 헌금

—인도네시아

선교관을 위해—

본교회에서는 서만수 선교사 내외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에 건립하는 선교관을 위하여 1,500만원(미화 29,079달러)목표로 지난 9월 28일 온 교회가 헌금하고 계속 헌금작정하고 있다. 한편 본교회 해외복음선교회 산하 「땅끝까지회」에서는 인도네시아선교관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0월 9일 본교회 친교대회 때 「일일매점 「인도네시아의 집」을 열어 그 날의 수익금을 전속기금에 보태기로 하였다.

공군사관 학교에서

10.27—29간 「부흥집회

대외전도회의 길이 공군사관학교에도 트여 오는 10월 27—29일(3일간) 공군사관학교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본교회에서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비롯하여 정상우 목사(청년부 지도)와 신성종 강도사(대학부 지도)가 강사로 가서 수고하시게 되었다.

금현교회에 오르간

본교회에서는 남전도회 개척교회인 금현교회(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소재)에 예배용 오르간 한대를 보내기로 했다. 아울러 그곳 교회 추계성례식에는 10월 26일에 갖기로 하고 본교회 부목사 김종택 목사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지금 금현교회는 송석범 전도사가 시무중이다.

75년도 주교 종합감사 실시

—10월 26일, 4개 분과로 나누어—

우리교회 주일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상황(교과과정, 주교행정, 행정업무, 행사운영, 자치활동)을 전반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기 위한 주일학교 종합 감사가 2 번째로 10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11부 주일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번감사에는 교육위원회의 행정분과위원회가 주관하여 열리게 된다.

교과과정, 제정, 행정, 행사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며 금번 감사에서 나온 문제들은 76년도의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금번 감사를 통해 75년의 평가와 정리의 효과를 기대하며 각부 주일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와 준비를 당부하고 있다.

금번 감사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장: 백성통목사, 감사부위원장: 정기성목사, 총지휘: 정관일목사, 교과과정감사위원: 백성통목사, 신성종감도사, 이연호전도사, 제정운영감사위원: 위영환장로, 김기정장로, 김창배장로, 행정업무감사위원: 송순일장로, 조현명장로, 김재창목사, 행사운영감사위원: 김한홍장로, 최석주장로, 홍종만목사

대학부 2부예배 실시

—새로 부지도에 정홍식 전도사—

그간 숫적인 증가 일로에 있는 대학부는 드디어 지난 9월 21일부터 1·2부 예배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 1부를 9시~10시 20분, 제 2부를 11시 50분~오후 1시로 두 차례 예배를 드리게된 대학부는 늘어나는 업무량 해결을 위하여 정홍식 전도사(본교회 집사, 대학부 생활지도처

담당)를 부지도 교역자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정전도사는 총회신학대학 신학연구원에 본교회의 장학생으로서 재학중으로 대학부 교사로 수고해 왔다.

이로써 대학부는 신성종 감도사와 구명신 전도사에 이어 세분 교역자를 맞은 셈이다.

청년, 대학부 정기총회

—회장에 김영위(청) 정관호(대)—

대학부는 지난 9월 7일 대학부실에서 76년도 정기총회를 가져 75년도의 결산보고와 아울러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했다. 4학년공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뽑아 전회원의 무기명투표로 실시된 이번총회에서 회

장에 정관호씨 부회장에 김희숙씨가 선출되었다.

또한 지난 9월 21일에는 청년부의 76년도 총회가 열려 회장에 김영위씨 부회장에 한형식(남)씨, 이옥균(여)씨를 선출하였다.

중·고등부 성가지회자

—고등부에 이효은집사 중등부에 임정배선생—

본교회 고등부 성가지회자 허조명 선생이 사임함에 따라 중등부 지회자 이효은 집사를 고등부로 전보하고 중등부 새 지회자에 임정배 선생이 부임하였다. 새로 우리교회에

서 일하게 된 임정배는 연세대 음대 성악과 3년 재학중으로 그동안 남영동교회 장년성가대를 지휘해 왔었다.

토막 소식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지난 주(6, 7, 8일) 인천 송월동교회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였다.

*본교회 추계 대집밤이 9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본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23일에 지키기로 하였다.

*본교회에서는 제주도 서귀포 소재 서남교회(전회문 장로 시무)에 오르간 한대를 보내기로 하였다.

*본교회에서는 시내 성현교회(이종영 목사 시무)에 유년주일학교 성가대를 가운 30명을 보조하기로 하였다.

*본교회에서는 구로동 소재 여전교회 지교회 성광교회(김창명 목사 시무)에 여전교회와 함께 150만원 보조하기로 하였다.

*영아부는 9월 28일 「십계명 암송 대회」를 열었는데 박동현·이정일 어린이가 1등을 차지하였다.

*영아부 주관 목요집회(본교회 어머니 교육)는 매목요일 10~12시까지인데 10월 강사는 김득룡 목사(총회신학대학 교수)의 「문제아 교육」에 대한 강의가 있다.

*유치부는 9월 28일 반별찬송부르기대회를 교사와 어린이 159명이 참가하여, 최우수상에는 열매 6반(김정자 선생 담임)이 차지하였다.

*유치부는 10월 26일 오후 2시 졸업생학부모초청과담회를 갖는다.

*유년부는 10월 5일 3학기 성경시험을 보았다. 19일에는 사도행전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유년부는 축원의 출석 300명을 지난 9월 28일 주일에 돌파, 316명이 출석했다.

*초등부는 10월 26일에 「반별성경 암송대회」(마태 5장~7장)에서 갖는다.

*중등부는 9월 27일 성경읽기 시상을 하였는데 1등에는 김혜령(1-7), 28일 가진 조별성가경연 대회는 5조(여)가 1등을 차지.

*고등부는 9월 21일 추석을 맞아 남부시립병원으로 위문.

*대학부는 10월 11일에 조별성가경연대회를 갖는다.

*노년부는 9월 28일 성경암송대회를 가졌다. 입상자는 1등 김연숙 할머니가 차지하였다.

기자석

○...지금도 영글어 가고 있다.

멀리 보이는 들판엔 벼이삭이 황금빛으로... 충현의 마당엔 울긋불긋했던 심령들이 황금빛으로... 안으로나 밖으로나 우리들에 수레에는 가득넘치기만 한다. 풍성한 계절에 우리는 영적으로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넘쳐야겠으며, 참으로 올바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요즘 일부 종교가들은 형제의 티를 너무도 과장하며 자기들의 물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먼저 그 눈속에 들보를 빼어버려야 밝히 볼 수 있겠고 깊이 사고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진주를 빼지 앞에 던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종교가들이 비판하는 때에 어찌 어머니가 아들에게 떡 대신 돌을 주지 않았는가 말이다. 참으로 우리 충현에 한 식구들은 정치와 경제를 묻고 갈 참 목자들이 모두 영글어 가도록 기도할 때라 생각한다. (안)

○...우리교회에 새로운 명물이 생겼다. 공중전화. 전화로 인해 꽤 많은 애를 먹었지만 공중전화를 놓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어느 교회에도 없는 「공중전화」라고 하는 어느 교사의 부정인지 긍정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도 있다. 사적(私的)인 일에만 사용하는 전화인지 또는 교회의 일(전화심방 등)에도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하는지 등의 의문과 아울러 불평도 더러 있지만 우선 당장은 편한 것만은 사실이다.

현제 장소를 좀 옮겼으면 어땠겠느냐 하는 의견에는 다소 귀를 기울여도 좋을 것 같다. 교회에 들어서면서 좁은 알뜰에 우뚝 자리 잡고 있는 공중전화에는 마치 우리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

낀다나... (이)

○...가을을 만나러 가자. 가을을 만나서 가을과 함께 있다가 가을을 데리고 편집실에 와야지. 「그래서 계속 고전중인 기자들에게도」 이제는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어야겠다. 결실을 찾는 가을에게 편집실에서 내어줄 것은 과연 무엇일까? 기자들 눈치를 보곤 오히려 가을이 자기 특유의 안정과 휴식을 선사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제 창을 달고 커튼을 굳게 내릴 때면 어느덧 희비가 엇갈린 75년도가 지나가리라. 결코 웃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웃으면서 차곡차곡 추억 속에 접어진다.

어쩐지 의식에도 없었던 비상하고 독특한 사건이 생길 것만 같다. 계절 탓이겠지... (혜)

○...매년 봄, 가을에 실시되는 교사친교회, 이는 교사들의 수고를 위로하며 피차간의 친목을 도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음 일에 더 큰 힘을 얻고자 하는 의도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다. 현제 언제부터인지 이 교사친교회는 친목과 단합을 위한 친교회보다는 「관광용」 친교회로 바뀐 듯한 기분을 없앨 수가 없다 「이런 기회에 못 가본 곳을...」, 「이번엔 어디를...」하면서 친목할 수 있는 분위기보다는 「관광」 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으니 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번 친교회에서는 그런일이 많이 시정돼 모부처에서는 조별로 「즉석점심」을 해 먹는 진중정도 있었다고. 허긴 이제 가까운 거리에 관광할 수 있는 곳은 갈 곳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에 모두 「관광용」 친교회를 거쳤겠으니 말이다... (수)

편집하고 나서

◇.....바쁜 일정이었다.

「풍성한 열매로 드러졌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 속에 「다음부터는...」 하는 다짐을 또 한다. 어렵게라도 계속되는 한 우리에게도 밝은 내일이 있을 것을 확신하기에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교회 현황」을 신성종 강도사님의 힘을 빌어 소개한다. 얼마 전, 우리교회를 다녀가신 스웨덴 선교협회의 총무인 인게마 마르틴손(Ingemar Martinsen) 목사님의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사진에서,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교회의 오늘은 우리로 하여금 남의 일같이 않게 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저모양인데 하물며 북한이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는 미제들이 교회당을 전부 폭격해서 교회가 없다」고 말하는 저들.

1984년이 아니라 아마도 1964년에 아니 1954년에 북한에서는 종교말살의 해로 정했는지도 모른다.

숙연한 자세가 안될 수 없다. 오늘의 우리 교회, 북한의 오늘, 그에 따른 선교 등을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자.

◇.....인도네시아에서 수교하시는 서만수 선교사는 매달 그 보고서를 보내오고 있다. 이번 호에도 그 보고

서를 그대로 실어 보았다.

과연 인도네시아에는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선교사님의 건강도 좋지 않고, 선교관을 짓기 위한 재정도 문제라는, 그리고 일본 선교의 길이 아직 열리고 있지 않다는 선교에 대한 우울한 소식이 우리의 주변에 나돌수록 우리는 더욱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기도, 기도의 부족이 아닐까.

□ 원고 모음 □

「충현」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투고를 환영합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종 류 : 수필 · 시 · 제언 · 신앙간증 등...

긴 이 : 원고지 7매 또는 13매

마 감 : 매월 세째주일까지

보낼곳 : 「충현 투고함」이나 교회사무실